

난지형(대서종)의 10월 26일의 추파는 단구형성을 저하로 상품성 단구수량이 0에 가까웠고, 2월 23일의 춘파는 급격히 증가되었다. 중간형(DL01)과 난지형(대서종)의 2월 23일의 춘파 이후에는 상품성 단구수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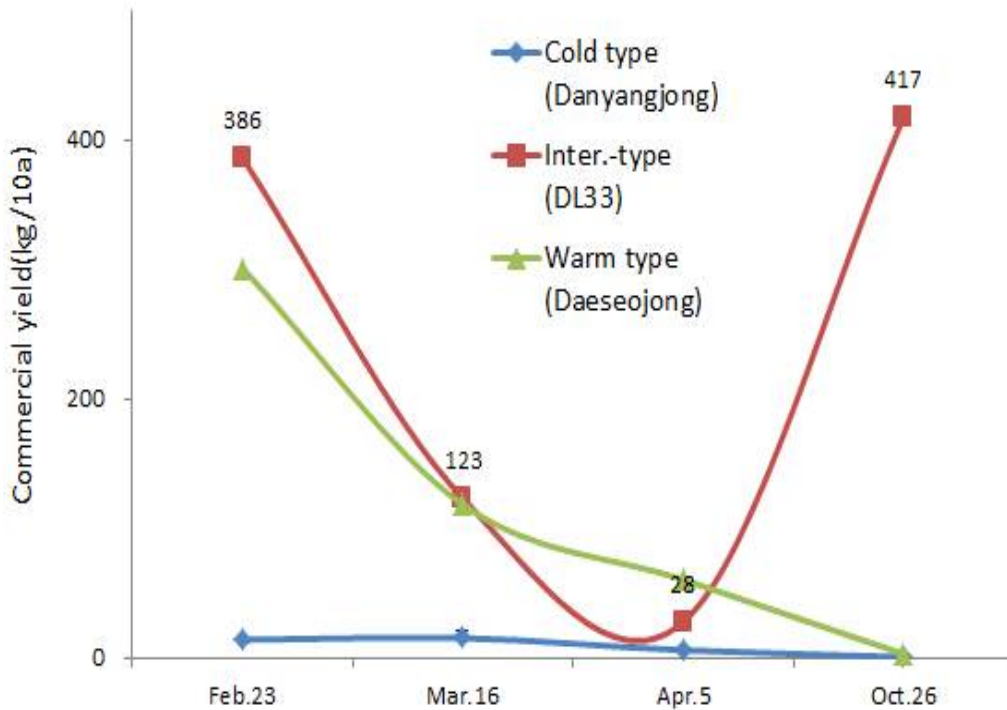


Fig. 10. Effects of ecotypes and planting dates on the yield of commercial single bulb in the cultivation of garlic

춘파재배에 따른 생태형과 파종시기별 소득은 Table 25와 같다. 2015년의 전국평균 마늘의 수량은 1,290 kg/10a로 조수입이 5,072천원/10a였고, 소득은 3,553천원/10a였다. 생태형별 파종시기 간 단구수량이 높아 소득도 높았는데, 한지형(단양종)은 10월 26일의 추파가 3,572천원/10a으로 전국평균 대비 101% 정도였다. 중간형(DL01)은 10월 26일의 추파가 6,338천원/10a으로 전국평균 대비 178%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중간형(DL01)의 2월 23일 춘파는 전국평균 대비 120%였으며, 난지형(대서종)의 2월 23일 춘파는 소득이 4,048천원/10a으로 전국평균 대비 114%로 높게 분석되었다.

단구생산을 목적으로 한 소득분석에서 중간형(DL01)의 10월 26일의 추파와 2월 23일의 춘파가 유리하고, 난지형(대서종)은 2월 23일의 춘파가 농가소득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어 현장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었다.